



강아지가 아플 때, 병원에 가야 할까?

보호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증상과
병원 방문 준비 가이드

전체 목차

무료 미리보기

이 책의 목적 4

처음 1~5분 확인14

PART 1.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상할 때 9

전체판 구성

PART 2. 지금 병원에 가야 할까요? · 전체판
..... 3

PART 4. 병원에 가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
전체판 3

부록.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기록지 · 전체판
..... 3

PART 3. 기록이 진료를 돕습니다 · 전체판

PART 5. 병원에서 돌아온 뒤 · 전체판 .. 3

17가지 증상 바로가기

01. 강아지가 토했어요 3

03. 변에 피가 섞여 있어요 3

05. 기침을 계속해요 3

07. 갑자기 쓰러지거나 발작을 해요..... 3

09.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었어요..... 3

11. 다리를 절뚝거리요 3

02. 설사를 해요 3

04. 밥을 안 먹고 축 처져 있어요..... 3

06. 숨쉬기 힘들어해요 3

08. 몸이 뜨겁고 심하게 혈떡여요..... 3

10. 중독이 의심돼요 3

12. 눈이 이상해요 3

13. 귀를 긁고 냄새가 나요 3

14. 피부에 상처나 발진이 생겼어요..... 3

15. 소변을 못 보거나 힘들어해요..... 3

16. 배가 부풀고 딱딱해요..... 3

17. 벌레에 물리거나 쏘였어요..... 3

PART 2부터의 전체 내용은 구매 후 제공되는 전체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

총 154면, 아픈 아이 앞에서 망설이지 않게 해 주는 실전 가이드

총 154면에 증상을 발견한 순간부터 진료와 회복까지 필요한 내용을 단계별로 담았습니다. 미리보기부터 ‘지금 출발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3단계 기준과 병원 전화 30초 대본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판에는 안전한 관찰 종료 시각, 탈수·출혈·호흡·발작·중독·이물·통증 판단, 취약견과 복합 증상, 진료 기록, 검사와 비용의 우선순위, 입원·전원, 복약 오류와 재진 기준을 새롭게 더했습니다. 병명을 맞히는 책이 아니라 보호자의 불안을 관찰·기록·질문·행동으로 바꾸어, 가장 필요한 순간 아이 곁에서 정확한 다음 선택을 돕는 책입니다.

이 책은 펫노트 블로그의 긴급 증상 관련 글을 단순히 모아 엮은 자료집이 아닙니다. 기존 글에서 다른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중복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블로그 한 편에 모두 담기 어려웠던 증상 관찰법, 위험신호, 병원 방문 준비, 수의사에게 전달할 정보, 진료 후 기록과 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깊이 있게 보 완했습니다.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글을 찾아 헤매지 않고,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어떻게 다음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 권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 책은 진단서가 아닙니다

질병을 확정하거나 수의사의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 책을 읽는 것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이런 보호자에게 추천합니다

- ✓ 강아지가 갑자기 아플 때마다 검색부터 하는 보호자
- ✓ 지금 병원에 가야 할지 판단이 어려웠던 보호자
- ✓ 병원에서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아쉬웠던 보호자
- ✓ 진료 후 약과 증상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싶은 보호자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플 때, 보호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검색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는 흩어져 있고, 어떤 것이 지금 우리 아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응급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17가지 증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검색 대신 이 책 한 권으로 관찰부터 진료 후 관리 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챕터는 같은 순서(먼저 확인 → 기록 → 위험신호 → 병원 준비 → 진료 설명 → 사후 관찰)로 구성되어 있어, 한 챕터에 익숙해지면 다른 챕터도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펫노트 발행일: 2026년 8월 | 초판 1쇄 2026 | 전자책 버전 1.1 | 최종 개정일 2026.08.10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수의사의 진료를 대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이상 증상을 더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이 책의 내용과 관계 없이 즉시 동물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petcarenote.co.kr

이 책을 활용하는 법

갑자기 이상할 때 → PART 1.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상할 때

증상별로 찾고 싶을 때 → PART 2. 지금 병원에 가야 할까요?

병원 가기 전에 → PART 3. 기록이 진료를 돕습니다

검사와 진료가 궁금할 때 → PART 4. 병원에 가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뒤 → PART 5.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직접 기록하고 싶을 때 → 부록.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기록지

색으로 구분된 6가지 표시

PART 2의 17가지 증상 챕터는 아래 여섯 단계가 같은 순서와 색으로 반복됩니다. 급할 때 처음부터 모두 읽지 않아도, 필요한 색의 상자를 찾아 현재 확인할 일과 다음 행동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

의식·호흡·잇몸색·통증·움직임처럼 지금 즉시 살펴야 할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확인합니다.

기록

증상 시작 시각, 횟수, 사진·영상, 식사·배변·배뇨 등 병원에 전달할 정보입니다.

막연한 느낌을 비교 가능한 사실로 바꿉니다.

위험신호

호흡곤란·의식 저하·반복 발작처럼 관찰을 멈추고 진료를 서둘러야 할 기준입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병원 준비

이동 전 전화, 약 목록, 제품 포장, 사진, 검사 결과 등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진료와 처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진료 설명

수 의사에게 증상을 어떤 순서로 말하고 무엇을 질문할지 정리한 안내입니다.

짧은 진료 시간에도 핵심이 빠지지 않게 합니다.

사후 관찰

투약 뒤 변화, 회복 방향, 재발과 부작용, 예정일 전 재진해야 할 신호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안전하게 회복을 지킵니다.

빠르게 사용하는 법

먼저 붉은색 ‘위험신호’를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청록색 ‘먼저 확인’과 파란색 ‘기록’을 봅니다. 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주황색 ‘병원 준비’와 보라색 ‘진료 설명’을 활용하세요.

증상 바로가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상태와 가까운 증상을 고르면, 각 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부터 위험신호·병원 준비·진료 설명·회복 관찰까지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강아지가 토했어요

구토 횟수·내용물·탈수와 복부팽만 위험

02. 설사를 해요

설사 형태·횟수·탈수와 동반 증상

03. 변에 피가 섞여 있어요

선홍색 혈변·검은 변·출혈 위험

04. 밥을 안 먹고 축 처져 있어요

식욕 저하·무기력·통증과 전신 상태

05. 기침을 계속해요

기침 양상·발생 상황·심장 및 호흡기 신호

06. 숨쉬기 힘들어해요

힘겨운 호흡·잇몸색·즉시 이동 기준

07. 갑자기 쓰러지거나 발작을 해요

실신과 발작 구분·지속 시간·회복 과정

08. 몸이 뜨겁고 심하게 열떡어요

열 노출·초기 대응·지연성 합병증

09.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었어요

이물 종류·섭취 시각·당기거나 먹이면 안 되는 경우

10. 중독이 의심돼요

독성물질 확인·금지 행동·병원 전달 정보

11. 다리를 절뚝거리요

체중 부하·부상 위치·안전한 이동

12. 눈이 이상해요

충혈·통증·혼탁·시력 응급신호

13. 귀를 긁고 냄새가 나요

분비물·냄새·통증·균형 이상

14. 피부에 상처나 발진이 생겼어요

병변 범위·가려움·감염 및 알레르기 단서

15. 소변을 못 보거나 힘들어해요

배뇨 시도·소변량·요로 폐색 위험

16. 배가 부풀고 딱딱해요

갑작스러운 팽만·헛구역질·위확장염전 위험

17. 벌레에 물리거나 쏘였어요

국소 부종·얼굴 부종·전신 알레르기 반응

PART 1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상할 때 이상 증상을 발견한 첫 순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이 PART에서 배우는 내용 증상을 발견한 첫 1~5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병원 진료를 미루면 안 되는 위험신호 구분법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그다음에 확인할지 정해져 있으면 보호자는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1-1. 처음 1~5분,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밥을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이 순간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다급함과, 별일 아닐 텐데 유난 떠는 건 아닐까 하는 망설임입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그다음에 확인할지 정해져 있으면 보호자는 조금 더 차분하게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을 발견한 첫 1~5분, 다음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 ① 의식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하는지, 눈을 맞추는지, 평소처럼 주변을 인식하는지 확인합니다.

불러도 반응이 둔하거나 눈의 초점이 흐리다면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 ✓ ② 호흡 가슴이 오르내리는 속도와 폭이 평소와 같은지 살핍니다. 입을 벌리고 빠르게 헁떡이거

나, 반대로 숨을 쉬는 간격이 눈에 띄게 길어졌다면 기록해 둡니다.

- ✓ ③ 움직임 스스로 일어나고 걷는지, 한쪽으로 기울거나 비틀거리지는 않는지 봅니다. 뒷다리에 힘

이 풀리거나 걸음이 어색해졌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첫 대응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기준

응급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수치보다 ‘평소와 얼마나 달라졌는가’입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 편안히 누웠을 때의 호흡, 잇몸색,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 물과 음식에 대한 관심을 평소와 비교하세요. 한 항목이 조금 달라 보이는 정도라도 여러 항목이 동시에 변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악화되면 관찰 시간을 줄이고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동안 강아지를 반복해서 세우거나 아픈 곳을 누르지 마세요. 보호자가 침착하게 한 사람은 관찰, 한 사람은 기록과 병원 연락을 맡으면 정보 누락과 이동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 노령견, 임신견, 단두종, 심장·신장·간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강아지는 같은 증상도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응급 상황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우리 아이 기준표’

평소 값을 먼저 알아두세요

아프지 않은 날 편안히 쉬고 있을 때 호흡 모습, 잇몸색, 식사량, 물 마시는 양, 하루 배뇨·배변 횟수, 걷는 속도를 한 번 기록해 두세요. 정상 기준은 강아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의 평균값보다 우리 아이의 평소 모습이 변화 판단에 더 유용합니다. 특히 심장·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집에서 관찰할 항목과 연락 기준을 미리 확인합니다.

이동 준비는 3분 안에 끝나야 합니다

주치 병원과 야간 응급병원의 전화번호·주소·운영시간, 이동장과 목줄, 얇은 담요, 복용약 목록, 최근 검사 결과, 보호자 연락처를 한곳에 모아두세요. 이동 전 병원에 증상과 도착 예정 시간을 알리면 필요한 처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 힘들거나 척추 손상이 의심될 때는 억지로 안지 말고, 병원이 안내하는 자세와 이동 방법을 따릅니다.

한 사람은 관찰하고 한 사람은 연락하세요

가족이 함께 있다면 역할을 나누세요. 관찰자는 의식·호흡·잇몸색과 증상 시작 시각을 확인하고, 연락자는 병원에 핵심 정보를 전달하며 이동 경로를 준비합니다. 혼자라면 완벽한 기록보다 안전한 이동이 먼저입니다. 촬영 때문에 처치나 출발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로 준비할 세 가지

- ☐ 평소 편안할 때의 호흡·잇몸색·식사·배변 모습을 기록하기
- ☐ 주치병원과 야간 응급병원의 연락처·주소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기
- ☐ 이동장·담요·약 목록·최근 검사 결과를 한곳에 준비하기

아픈 아이 앞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

갑작스러운 증상 앞에서 불안해지는 것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불안한 상태에서도 관찰 순서를 정하면 행동은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모습, 의식과 반응, 잇몸색, 일어설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확인합니다.

완벽한 판단보다 안전한 다음 행동

보호자가 병명을 맞히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기다려도 되는지, 병원에 전화할지, 즉시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책은 관찰을 흐립니다

조금 늦게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어도 원인을 따지는 일은 뒤로 미루세요. 지금부터 시작 시각과 변화를 적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기억할 한 문장

나는 진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발견해 안전한 진료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괜찮아 보인다’는 느낌을 확인 가능한 정보로 바꾸기

보호자의 직감은 중요하지만, 진료에 도움이 되려면 관찰 가능한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평소와 비교하세요

‘기운이 없다’ 대신 이름을 불렀을 때 고개를 드는지, 좋아하는 간식에 다가오는지, 혼자 일어나는지를 평소와 비교합니다.

시간을 붙여 말하세요

‘계속 토한다’보다 오전 7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세 번 토했다고 말하면 악화 속도와 탈수 위험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함께 나타난 변화를 묶으세요

구토만 보지 말고 호흡, 복부팽만, 통증, 배뇨, 잇몸색을 함께 봅니다. 증상의 조합은 한 가지 증상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할 한 문장

느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시간·횟수·비교 기준을 붙이세요.

처음 1~5분, 무엇을 먼저 볼까요?



그림 속 상황과 우리 아이의 현재 모습을 차분히 비교해 보세요.

관찰과 기록

의식 반응 → 호흡 → 움직임 → 통증 반응 → 증상 반복 여부 순서로 확인합니다.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

잇몸이 파랗거나 창백함, 심한 호흡곤란, 반응 저하가 보이면 관찰보다 이동이 먼저입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 ④ 통증 배나 등, 다리를 부드럽게 만졌을 때 움찔하거나 피하려는 반응, 또는 물려는 반응이 있는

지 확인합니다. 강압적으로 누르지 말고, 평소 만지던 손길로 가볍게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 ⑤ 반복되는 증상 구토, 기침, 떨림 등이 한 번으로 끝나는지 반복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발생 시각

을 기록합니다.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되는 패턴이 병원 진료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이후 어떤 증상 챗터를 펼치더라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관찰 순서입니다. 급할수록 이 순서를 따라가면, 보호자 스스로도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반려동물은 통증이나 불편감을 본능적으로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야생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 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행동"은 생각보다 늦게,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자세, 걸음걸이, 좋아하는 자리, 부르면 다가오는 속도 등을 미리 익혀두면 미묘한 변화를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다르게 살펴야 할 부분 어린 강아지(생후 1년 미만)는 체온 조절 능력과 면역력이 아직 미숙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관찰 간격을 더 짧게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령견(대략 7~8세 이상, 대형견은 그보다 이를 수 있음)은 이미 갖고 있던 만성 질환이 급성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평소 복용 중인 약과 지병을 함께 고려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눈, 귀, 잇몸(코 주변), 배, 다리 등 다섯 부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상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1-2.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할 위험신호

앞서 확인한 다섯 가지 항목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확인해야 할 위험신호 의식: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지금 출발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쓰는 3단계 결정법

모든 증상이 응급은 아니지만, 위험신호가 있는데도 확신을 기다리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1단계: 생명 신호

의식 저하, 힘겨운 호흡, 푸르거나 매우 창백한 잇몸, 반복 발작, 갑작스러운 복부팽만이 있으면 기록보다 이동이 먼저입니다.

2단계: 악화 속도

몇 시간 전보다 횟수·강도·동반 증상이 늘었거나 물조차 유지하지 못하면 관찰 시간을 줄이고 병원에 연락합니다.

3단계: 회복 여유

어린 강아지, 노령견, 임신견, 단두종, 만성질환견은 같은 증상에서도 버틸 여유가 적을 수 있으므로 더 일찍 상담합니다.

기억할 한 문장

확신이 생긴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때 먼저 연락합니다.

잇몸색: 잇몸이나 혀 색깔이 창백하거나 파랗게 보이는 경우 호흡: 숨을 쉬기 위해 목을 길게 빼거나 앉지도 못하고 서서 헐떡이는 경우 경련: 경련이나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는 경우 복부: 배가 갑자기 딱딱하게 부풀고 만졌을 때 극심하게 아파하는 경우 출혈: 다량의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배뇨: 하루 동안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화장실을 반복해서 들락거리는 경우 ※ 하나라도 해당하면 진료를 지체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은 응급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이 신호들은 진단명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켜봐도 되는지,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다음 PART 2의 관련 챕터를 참고하는 동시에,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응급 여부를 가늠하는 기본 원칙

수의학에서 응급 상황을 판단할 때 흔히 참고하는 것은 "ABC" 원칙입니다. 기도(Airway)가 막히지 않았는지, 호흡(Breathing)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순환(Circulation, 잇몸색과 맥박)이 유지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명확히 이상하다면, 다른 증상을 더 살피기보다 즉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책의 모든 챕터에서 "이런 신호는 기다리지 마세요" 항목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증상을 발견했을 때 행 관찰 → 기록 → 위험신호 확인 → 병원. 이 순서만 기억해도 훨씬 침착 동순서: 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전화하는 30초 대본

당황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빠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듯 말해도 괜찮습니다.

첫 문장: 누구인지

‘7살, 4.2kg 말티즈이며 심장약을 복용 중입니다’처럼 나이·체중·품종·기저질환을 말합니다.

둘째 문장: 무슨 일이 언제부터인지

‘오늘 오전 6시부터 물을 마실 때마다 세 번 토했고 지금은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처럼 시작 시각·횟수·현재 상태를 전합니다.

마지막 문장: 무엇을 물을지

‘지금 바로 가야 하는지, 이동 중 물이나 음식을 주어도 되는지, 어떤 자세로 데려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기억할 한 문장

짧고 정확한 전화 한 통이 집에서의 막연한 기다림을 안전한 진료로 바꿉니다.